

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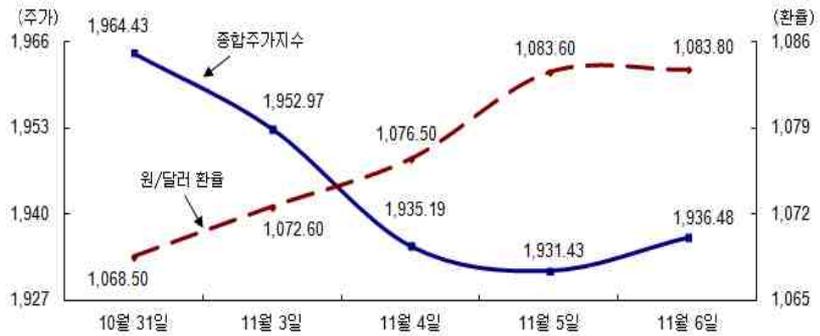
경제주평

Weekly Economic Review

-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
- 경제성장과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

週間 主要 經濟 指標 (10.31~11.06)

Better than
the Best!



차 례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주요 경제 현안 | 1 |
| □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 | 1 |
|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| 14 |

□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.
 □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총 관 :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(2072-6230, swan@hri.co.kr)
 □ 경제연구본부 : 최 성 근 선임 연구원 (2072-6223, csk01@hri.co.kr)

Executive Summary

□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 - 경제성장과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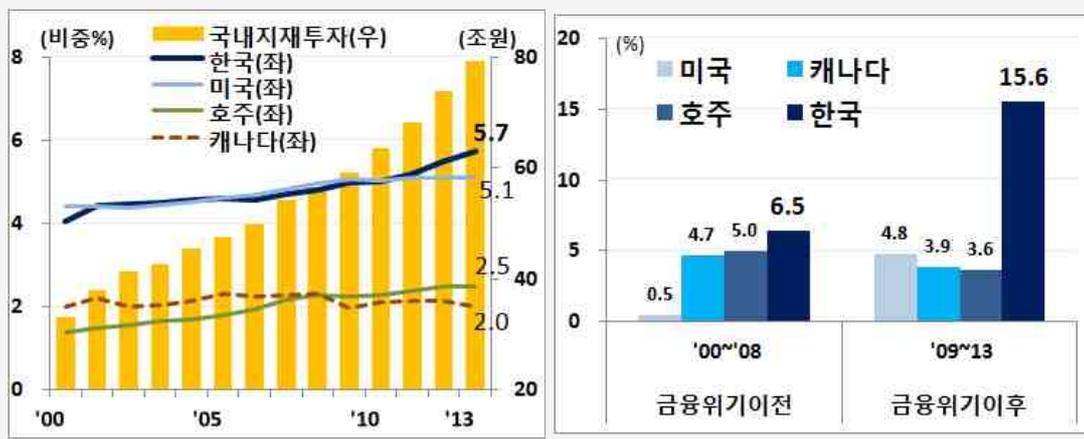
■ 연구배경

2014년 국민계정 개편과 함께 '지식재산생산물투자'(이하 지식재산투자) 항목이 신설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. 국내경제는 주력산업의 노후화 및 저출산·고령화 등으로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. R&D투자와 비R&D투자(소프트웨어, 콘텐츠, 지재권 등)를 포함한 지식재산투자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국내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. 본고에서는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를 주요국과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고, 이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.

■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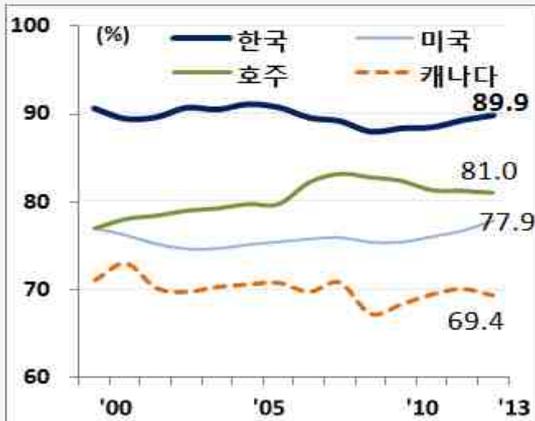
첫째, 국내 지식재산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.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.0%에서 2013년 5.7%로 크게 늘어났고, 연평균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7.0%에 달했다. 2013년 기준 GDP대비 투자비중은 미국(5.1%), 호주(2.5%) 캐나다(2.0%)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. 둘째, 경제위기 이후 국내 지식재산투자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.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성장기여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무려 28.6%에 달했고, 2011년 유럽재정위기시에도 21.7%를 나타내면서 국내 경제 위기시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다. 또한 지식재산투자의 성장기여율은 금융위기 이전(2000~2008년) 6.5%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9~2013년) 15.6%로 두배 이상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.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성장기여율은 동기간 한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, 미국을 제외하고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〈국내 지식재산투자 및 주요국 GDP대비 비중 추이〉 〈주요국 지식재산투자의 성장기여율 추이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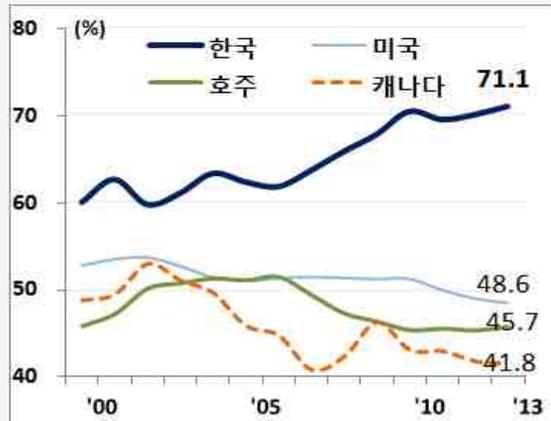


셋째, 알려져 있는 바와 달리 국내 지식재산투자는 민간주도인 반면, 선진국은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. 국내 지식재산투자에서 민간투자의 비중은 89.9%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. 반면 주요국인 미국(77.9%), 호주(81.0%), 캐나다(69.4%)는 민간비중이 우리보다 낮고 상대적으로 정부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. 넷째 선진국은 콘텐츠 등 비R&D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, 우리나라는 R&D 투자에 편중되어 있다. 국내 지식재산투자는 R&D 투자 비중이 71.1%로 주요국인 미국(48.6%), 호주(45.7%), 캐나다(41.8%)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. 반면 콘텐츠 등 비R&D 투자의 비중은 28.8%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.

<주요국 지식재산투자의 민간비중 추이>



<주요국 지식재산투자 R&D 비중 추이>



■ 시사점

국내경제에서 지식재산투자의 의미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**첫째**,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투자 선도력을 강화해야 한다. 특히 정부는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여 기초과학기술 개발 및 R&D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 **둘째**, 콘텐츠 등 비R&D 부문에 대해서도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. 특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게임, 미디어,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, 관련 인프라 투자를 적극 늘려야 한다. **셋째**, R&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 및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,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첨단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. **넷째**, 중장기적으로 지식재산투자 확대를 통해 하락하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. R&D 절대규모를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R&D 스톡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인 R&D 투자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. 또한 과감한 투자여건 개선, 산업경쟁전략의 혁신, 인적자본의 고도화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국내 성장잠재력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.

1. 연구 배경

○ 2014년 국민계정 개편과 함께 '지식재산생산물투자'(이하 지식재산투자) 항목이 신설되면서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현주소를 진단해 볼 필요성 제기

- 새로운 통계기준(2008SNA)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비용으로 취급되던 R&D 투자 등이 자산으로 처리되면서 '지식재산투자' 항목이 신설¹⁾

- 2014년 한국은행은 기존의 1993SNA기준에서 새로운 2008SNA기준에 따라 국민계정을 개편하고 그 일환으로 지식재산투자 항목을 신설
- 지식재산투자는 여러 해에 걸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기준에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관련 투자와 미래 소득 간에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임

- 향후 성장을 부진 및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국내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

- 지식재산투자가 2014년 2/4분기 전기대비 4.2% 감소하면서 GDP 증가율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높아짐
- OECD에 따르면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급락하여 2030년대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%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²⁾
- 지식재산투자는 국내 산업에서 신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과 연관되어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있어 중요도가 매우 높음

- 연구개발투자(R&D투자)를 포함하는 지식재산투자는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국내경제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

- 성장회계에 따른 생산함수에서 총산출량(Q)는 노동투입(L)과 자본투입(K), 그리고 총요소생산성(A)으로 구성

1) 2008년 UN은 R&D 증대, 다국적 기업 확대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민계정 체계인 '2008SNA'를 발표. 한국은행은 이를 2014년 3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하였으며, 자산 범위 확대, 기준년 개편, 분류체계 변경 등으로 2001~2012년 중 실질GDP 증가율은 평균 4.2%로 구계열 성장률 3.9%에 비해 0.3%p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냄. 자세한 국민계정 개편 내용은 한국은행, "국민계정의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 및 2010년 기준년 개편 결과"를 참조.

2) OECD, Economic Survey, Korea 2013.

- 콥-더글라스 생산함수(Cobb-Douglas Utility Function) 가정 하에서 경제성장을 자본, 노동과 같은 요소투입의 변화와 요소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성장요인을 총요소생산성으로 설명
- 즉, 총요소생산성이란 자본과 노동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항으로서 연구개발, 지식과 인적자본 축적, 금융 및 노동시장의 효율화 등 다양한 요인들의 기여분을 모두 포함하며, 특히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대변

$$\text{총산출}(Q) = (\text{노동}(L), \text{자본}(K), \text{총요소생산성}(A))$$

- 특히 국내경제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발전될수록 전통적인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를 보이며, 지식재산투자의 중요성이 증대
 - 한국 경제는 그동안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지만,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 요소투입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
 - 향후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피부양인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저축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투자둔화로 인하여 자본투입의 기여도 역시 축소 예상
 -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조선, 자동차, 반도체 등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'규모의 경제' 효과 창출이 거의 한계에 달한 상황
 - 생산함수에 따르면 총산출량을 제고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, 자본 등 요소 투입을 증대하거나 총요소생산성을 늘려야 함
 -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 등 지식재산투자를 통한 생산성 및 경제 효율성 향상이 필요
- 본고에서는 지식재산투자의 현황과 국제 비교를 통한 특징을 살펴보고, 국내경제에서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
 - 국민계정을 2008SNA로 개편한 국가들과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경제에서 지식재산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보고자 함

2. 국내 지식재산투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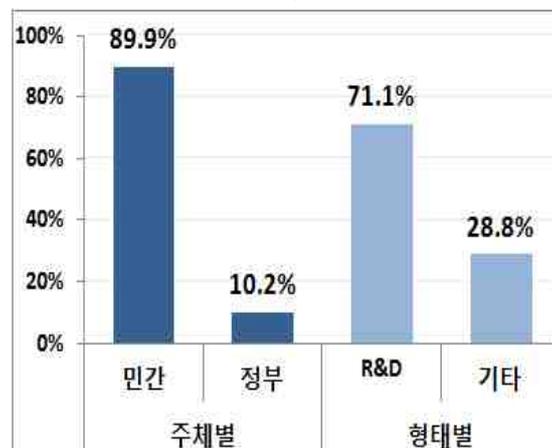
○ (전체 현황)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의 하위항목으로 국내총생산(GDP)에서 약 6%의 비중을 차지함

-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는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자산 항목으로서 설비투자, 건설투자와 함께 총고정자본형성(투자)에 포함
 -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는 투자항목으로서 크게 연구개발투자(R&D)와 기타지식재산투자로 구분되며, 주체별로는 민간과 정부로 구분됨
 - 국민계정상 R&D투자란 지식스톡을 늘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창조적 활동과 새로운 운용방법을 고안하는 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임
 - 기타지식재산투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, 오락, 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, 광물탐사 등과 관련된 기업 또는 정부 투자를 의미³⁾
-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가 국내총생산(실질기준GDP)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5.7%임
 - 주체별 구분 : 지식재산투자에서 민간투자는 89.9%로 대부분을 차지하며, 정부투자는 10.2%를 차지
 - 형태별 구분 : 지식재산투자에서 연구개발투자(R&D)가 차지하는 비중은 71.1%이며, 기타지식재산투자는 28.8%임

<국민계정 지출항목별 GDP대비 비중 2013>

| 지출 항목 | 비중(%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최종소비 | 63.7 |
| 민간소비 | 49.3 |
| 정부소비 | 14.4 |
| 총고정자본형성 | 29.2 |
| 건설투자 | 14.4 |
| 설비투자 | 9.1 |
| 지식재산투자 | 5.7 |
| 재화와 서비스 수출 | 57.1 |
| 재화와 서비스 수입 | 50.4 |

<지식재산투자 주체별, 형태별 비중 2013>



자료 : 한국은행 국민계정.
주 : 실질GDP대비 비중임.

3) 기타지식재산투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은행, “국민계정의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 및 2010년 기준년 개편 결과”를 참조.

○ (부문별 현황) 지식재산투자는 다른 투자부문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, GDP대비 비중도 꾸준히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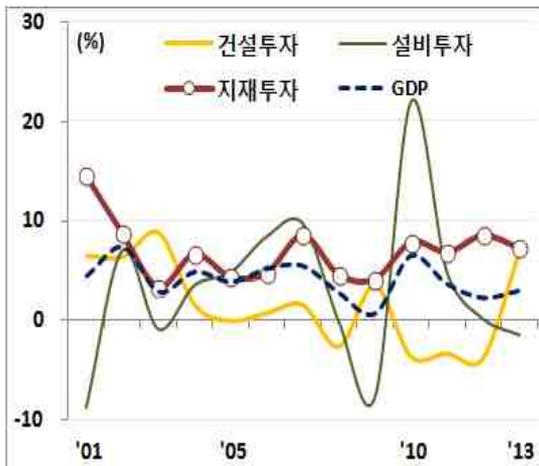
- 다른 투자부문에 비해 지식재산투자는 높은 증가율 나타냄

-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는 2001~2013년 동안 연평균 7.0% 증가하여 동기간 GDP 평균증가율 4.1%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
- 동기간 건설투자는 연평균 1.6%, 설비투자는 연평균 2.9% 증가하여 다른 고정자본형성(투자) 부문과 비교할 때 지식재산투자의 증가세가 상당히 높음
- 한편 지식재산투자 중 R&D 투자는 2001~2013년 동안 평균 8.4%, 기타지식재산투자는 평균 4.5%의 증가율을 나타냄

- 투자부문에서 지식재산투자의 비중만 꾸준한 증가세 지속

- 우리나라 GDP(2008SNA기준)에서 지식재산투자(부가가치 기준)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.0%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5.7%를 기록
- 국민계정 투자부문과 비교할 때 설비투자는 동기간 10.6%에서 9.1%로, 건설투자는 19.7%에서 14.4%로 감소한 반면 지식재산투자의 비중은 증가세
- 한편 지식재산투자에 의해 생산된 부가가치는 2000년 24.7조원에서 2013년 84.5조원으로 연평균 9.9% 증가

<GDP증가율과 투자부문별 증가율 추이>



<국민계정 지출항목별 GDP대비 비중>



자료 : 한국은행 국민계정.
주 : 실질GDP대비 비중임.

3. 주요국 비교를 통해 본 지식재산투자의 특징4)

○ (비중과 증가율) 지식재산투자는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투자증가율도 주요국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

- 주요국대비 지식재산투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

- 우리나라 GDP(2008SNA기준)에서 지식재산투자(부가가치 기준)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.0%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5.7%를 기록
- 국민계정을 2008SNA 기준으로 개편한 미국(5.1%), 호주(2.5%), 캐나다(2.0%) 등은 지식재산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작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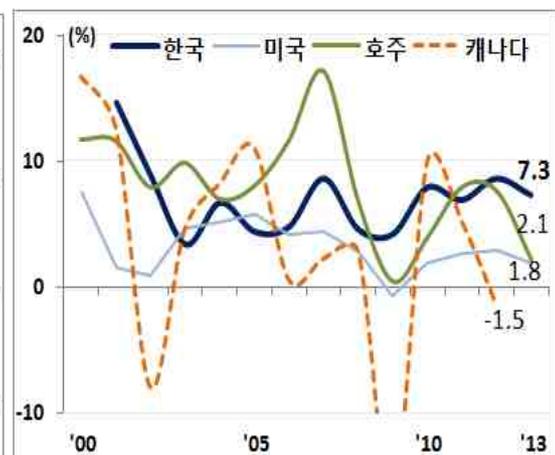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지식재산투자는 최근 주요국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

- 한국의 지식재산투자는 2001~2013년 동안 연평균 7.0% 증가하였고, 최근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3년 7.3%의 증가율 기록
- 동기간 미국은 3.1%, 캐나다 2.2%, 호주 7.8%를 기록했지만, 주요국들의 지식재산투자 증가율은 최근 들어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
- 특히 호주의 경우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비중이 높아 한때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, 최근 들어 급격한 하락 추세를 나타냄

<국내 지식재산투자 및 주요국 GDP대비 비중 추이>



<주요국 지식재산투자 증가율 추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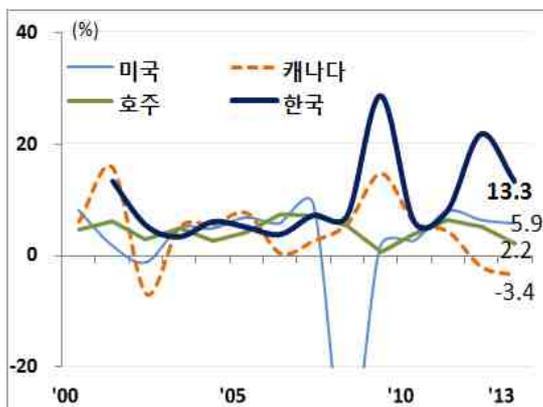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, 미국 상무부, 호주통계청, 캐나다 통계청.

4) 본장에서는 국민계정을 1993SNA에서 2008SNA로 이행한 미국과 호주, 캐나다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음. 독일도 2008SNA에 기초하여 2010ESA로 국민계정을 개편하였으나, 지식재산투자에 대한 자료 접근의 한계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.

○ (성장기여율) 주요국대비 지식재산투자의 성장기여율은 높은 수준이며, 특히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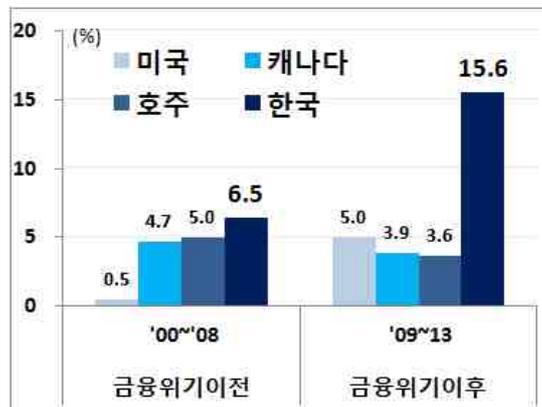
- 지식재산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, 주요 경제위기시마다 성장의 버팀목이 되었음
 - 글로벌 금융위기시 경제성장률은 0.7%로 급락했지만, 지식재산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이중 0.2%p로 성장기여율은 무려 28.6%에 달함
 - 2012년 유럽재정위기시에도 경제성장률은 2.3%로 부진했으나, 지식재산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.5%p로 성장기여율은 21.7%를 나타냄
 - 지식재산투자는 안정적인 성장기여뿐 아니라 경제위기시마다 투자가 지속 또는 확대됨으로써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음
- 금융위기 이후 지식재산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주도적 역할
 - 금융위기 이전(2001~2008년) 우리나라 지식재산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평균 6.5%였으나, 금융위기 이후 (2009~2013년)에는 15.6%로 투자부문 중 가장 높은 기여율 나타냄
 - 동기간 미국은 0.5%에서 5.0%로 증가했고, 캐나다는 4.7%에서 3.9%로, 호주는 5.0%에서 3.6%로 하락
 - 이는 우리나라 지식재산투자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최근 국내경제 성장에 있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시사

<주요국 지재투자의 성장기여율 추이>



자료 : 한국은행, 미국 상무부, 호주통계청, 캐나다 통계청.

<금융위기 전후 주요국 지재투자 성장기여율>



자료 : 한국은행, 미국 상무부, 호주통계청, 캐나다 통계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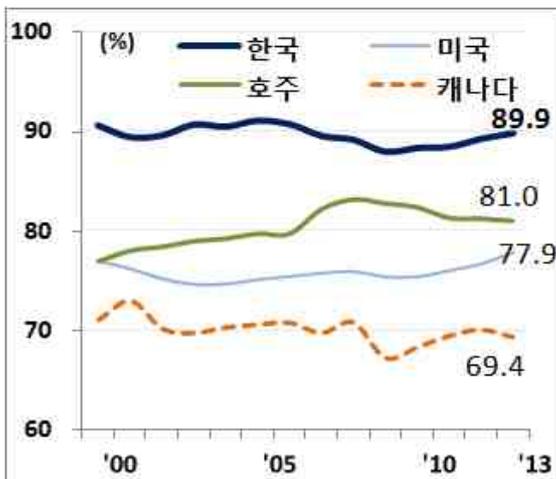
주 : 해당기간내 평균기여율임.

○ (주체·형태별) 주요국대비 우리나라 지식재산투자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민간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, 특히 R&D투자에 편중되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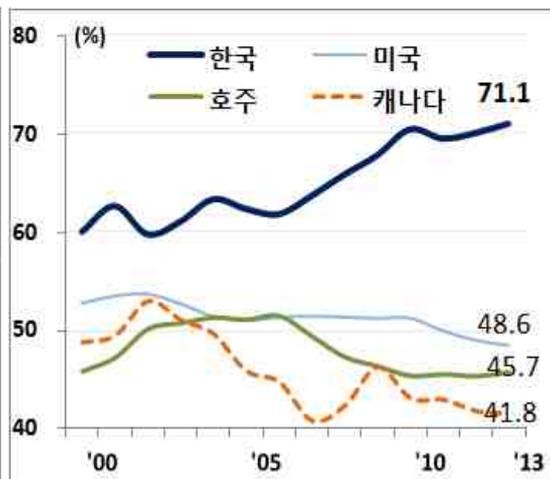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지식재산투자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은 약 90%로 주요국에 비해 민간주도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
 - 우리나라 지식재산투자의 민간비중은 2000년 90.6%에서 2013년 89.9%를 나타내며 민간주도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
 - 주요국과 비교할 때 민간비중이 높은 호주는 81.0%, 미국이 77.9%, 캐나다는 69.4%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
 - 민간부문의 지식재산투자(부가가치 기준)는 2000년 30.0조원에서 2013년 71.3조원으로 연평균 6.9% 증가하였음

- 우리나라 지식재산투자는 R&D 투자에 편중되어 있으며, 특히 최근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R&D 투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
 - 우리나라 지식재산투자에서 R&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0.0%에서 2013년 71.1%로 늘어났으며,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짐
 - 주요국의 R&D 투자 비중은 미국이 48.6%, 호주가 45.7%, 캐나다가 41.8%로 모두 50%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기록
 - 한편 우리나라의 R&D 투자(부가가치 기준)는 2000년 19.9조원에서 2013년 56.4조원으로 연평균 8.4%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음

<주요국 지식재산투자 민간비중 추이>



<주요국 지식재산투자 R&D 비중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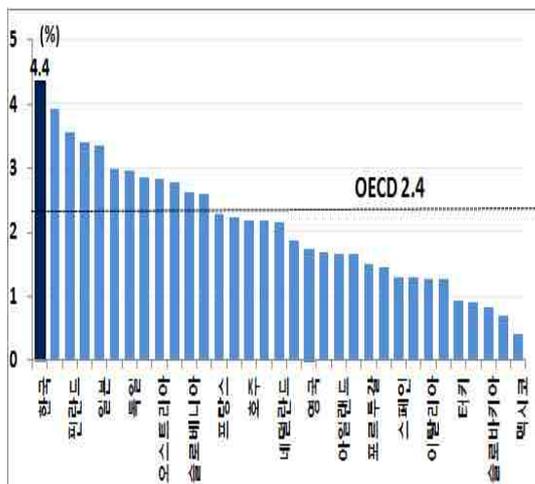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, 미국 상무부, 호주통계청, 캐나다 통계청.

○ (R&D 효율성)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GDP대비 R&D지출액 비중 최고 수준이나, 기술무역수지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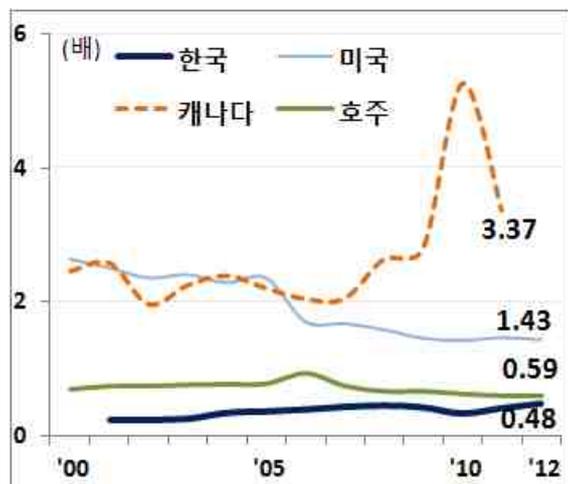
- GDP대비 R&D 투자 지출 비중은 4.4%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
 -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R&D투자 지출액은 55.5조원으로 GDP대비 비중이 4.4%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
 - 이는 주요국인 미국 2.8%, 호주2.2%, 캐나다 1.7%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R&D투자는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줌
- 다만 R&D지출 규모에 비해 기술무역수지비가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등 R&D 효율성은 주요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
 - 우리나라의 기술수입대비 기술수출 비율이 2012년 기준으로 0.48배에 불과하여 높은 R&D지출에도 불구하고 해외기술 수입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음
 -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GDP대비 R&D지출은 우리보다 낮지만 호주를 제외한 미국과 캐나다는 기술수지비가 1.0배를 상회
 -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2000년 28.6억달러 적자에서 2012년 57.4억달러 적자로 기술무역의 적자폭도 확대되었음
 -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R&D투자 비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기술의존도가 높고, R&D투자 효율성이 주요국에 비해 부진함을 시사해 줌

<OECD국가들의 GDP대비 R&D지출 비중 2012>



자료 : OECD.

<주요국 기술무역수지비 추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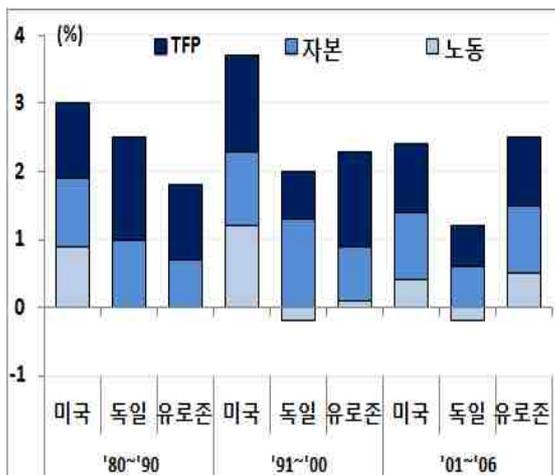
자료 : OECD, 과학기술통계서비스.

주 : 기술수지비=(기술수출액/기술도입액).

○ (잠재성장률) 지식재산투자를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향후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

- 주요 선진국의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추이를 보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노동, 자본에 비해 높게 나타남
 - 미국, 독일,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가장 작고,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
 - 이는 주요 선진국가들의 경제구조가 노동과 자본 투입보다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
- 향후 국내경제에서 요소투입의 성장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, 지식재산투자 등 총요소생산성(TFP)의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아질 전망
 - 2020년 이후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0.2%로 하락하고 2030년대에는 -0.3%로 오히려 감소. 자본의 기여도 동기간 1.4%, 0.9% 수준으로 하락
 - 반면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동기간 1.35%에서 1.2%, 1.1%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. 이는 향후 총요소생산성이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짐을 의미
- 따라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투자를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대가 유일한 해법임
 -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은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이며, 따라서 R&D 투자 등 지식재산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유일한 해법

<주요국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비교>



자료 : European Economic Network.

<잠재성장률과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장기 전망>



자료 : OECD. Economic Surveys KOREA 2012,

4. 시사점

- 정부와 비R&D부문을 중심으로 지식재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, R&D 효율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함

첫째, 국내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

- 지식재산투자가 GDP 증가율을 상회하며, 높은 성장 견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
 - 경기 하방 요인들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기시에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

둘째, 정부 차원에서의 지식재산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, 특히 대규모 기술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산업과 기초과학기술을 육성

-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기술인프라 구축 및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R&D 투자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함
 - 이를 위해 산학연 R&D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
 - 정부의 R&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한편 함께 민간의 응용기술과 역할분담을 감안해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

셋째, 각종 미디어와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비R&D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

- 각종 영화, 영상, 음반,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개발과 저작권 및 한류 콘텐츠 등 비R&D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
 - 특히 경쟁력이 높은 게임과 소프트웨어 및 한류 드라마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
 - 또한 각종 드라마, 영화, 음반, 게임 등 고부가가치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창조적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도 적극 확대할 필요

넷째, 합리적인 R&D 투자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원천기술 확보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R&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

- 시장 수요에 따르는 국가 R&D 사업의 탄력적인 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,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&D 투자를 확대
 - R&D 예산 지원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
 - 또한 R&D 투자를 통해 생산된 기술이 효과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체계를 개선

다섯째, 노동과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정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식재산투자 확대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

-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R&D 투자를 통한 기술력 제고 및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
 - 지속적인 R&D 투자 확대를 통해 R&D 스톡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
 - 또한 효과적인 R&D 투자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투자 여건 개선, 산업 경쟁 전략의 혁신, 인적자본의 고도화 등이 필요
 - 다만 물적자본의 확보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요인인 만큼 국내외 투자 자본의 지속적인 확보와 각종 유인책 마련도 동시에 추진

최성근 선임연구원(2072-6223, csk01@hri.co.kr)

<참고 1> 국민계정 개편 추이

○ 금년 개편은 역대 11번째이며 주요 개편 추이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

<국민계정 개편 연혁>

| 회차 | 발표연도 | 기준년 | 대상계열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|
| | 1958년 | 1955년 | 1953~57년 | - 1953 SNA에 의거 작성 |
| 1 | 1964년 | 1960년 | 1953~63년 | |
| 5 | 1987년 | 1980년 | 1970~85년 | - 1968 SNA 이행 |
| 6 | 1989년 | 1985년 | 1970~87년 | - 4대 국민계정(국민B/S 제외) 작성 -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연결 |
| 8 | 1999년 | 1995년 | 1970~97년 | - 1993 SNA 부분 이행 |
| 9 | 2004년 | 2000년 | 1970~02년 | - 1993 SNA 이행 완료 |
| 10 | 2009년 | 2005년 | 1970~07년 | - 연쇄가중법 및 지출접근법 도입 |
| 11 | 2014년 | 2010년 | 1953~13년 | - 2008 SNA 이행 - 5대 국민계정 완성(국민B/S 작성) - 공표시계열 확장(1970년 → 1953년) |

- 새 국제기준(2008 SNA) 적용

- R&D 등 자산 범위 확대 : 종전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R&D, 오락·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등 지식재산생산물(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)과 무기시스템을 자산으로 처리
- 가공 및 중계무역의 발생시점 변경 : 국가간 거래를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가공무역, 중계무역 등 글로벌 생산(global manufacturing) 활동의 거래발생시점을 '국경 통과'에서 '소유권 이전'으로 변경
- 공공부문계정 신규 편제 :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심이 높아진 재정지출의 성과 평가, 건전성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공공부문*의 총수입, 총지출, 수지 등의 공공부문 관련 신규 지표를 개발
- 공급사용표 개발 및 재투자수익 신규 반영 : 생산, 지출 및 분배 GDP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사용표를 개발하는 한편, 경제주체간 수익 흐름의 실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국외직접투자의 재투자수익(reinvested earnings) 등을 신규 반영
- 분류체계 변경 : 총고정자본형성에 지식재산투자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① 연구개발(R&D)과 ② 기타지식재산생산물(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, 오락, 문학작품 및 예술품원본, 광물탐사 및 평가)로 세분화

- 기준년 개편(2005→2010)

- 센서스(Census)통계 반영 : GDP 규모 및 구조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분기 및 연간 국민계정 추계시 이용할 수 없었던 센서스통계(경제총조사, 인구주택총조사 등), 실측 산업연관표 등 미시정보를 적극 활용
- 국민계정체계내 정합성 제고 : 분기GDP와 연간GDP의 금액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벤치마킹(benchmarking) 등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도입. 그 외에 경제주체별 소득발생계정을 신규 작성, 국민대차대조표 개발
- 기타 주요 추계방법 개선 : 분기 잠정 추계시 이중 디플레이션 방식을 적용하고, 정부생산의 실질화 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, 복지관련 지출을 국민계정 기준에 따라 정부소비 및 민간 비영리단체 소비로 구분하여 반영

○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

- 2001~2012년중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(신계열)은 4.2%로 구계열 성장률 3.9%에 비해 0.3%p 상승
- 실질GDP 성장률의 연간 추세는 기존과 거의 동일한 가운데 R&D 투자활동이 활발하였던 기간에 상향 수정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추정

< 1993SNA(구계열)와 2008SNA(신계열)에 따른 연도별 성장률 비교>

| | 2001 | 2004 | 2005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2012 | 평균 (01~12년)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신계열 (A) | 4.5 | 4.9 | 3.9 | 5.5 | 2.8 | 0.7 | 6.5 | 2.3 | 4.2 |
| 구계열 (B) | 4.0 | 4.6 | 4 | 5.1 | 2.3 | 0.3 | 6.3 | 2.0 | 3.9 |
| (A-B, %p) | 0.5 | 0.3 | -0.1 | 0.4 | 0.5 | 0.4 | 0.2 | 0.3 | +0.3 |

주요 국내외 경제지표

□ 주요국 성장률 추이

| 구분 | 2012년 | | | | | 2013년 | | | | | 2014년* |
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|
| | 연간 | 1/4 | 2/4 | 3/4 | 4/4 | 연간 | 1/4 | 2/4 | 3/4 | 4/4 | |
| 미국 | 2.8 | 3.7 | 1.2 | 2.8 | 0.1 | 1.9 | 2.7 | 1.8 | 4.5 | 3.5 | 1.8 |
| 유로 지역 | -0.6 | -0.1 | -0.3 | -0.1 | -0.5 | -0.4 | -0.2 | 0.3 | 0.1 | 0.3 | 0.8 |
| 일본 | 2.0 | 3.7 | -1.7 | -3.1 | -0.2 | 1.7 | 5.2 | 3.4 | 1.4 | -0.2 | 0.9 |
| 중국 | 7.7 | 8.1 | 7.6 | 7.4 | 7.9 | 7.7 | 7.7 | 7.5 | 7.8 | 7.7 | 7.4 |

주 : 1) 2014년 전망치*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.

2) 미국,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,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,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.

□ 국제 금융 지표

| 구분 | 2012년말 | 2013년 | | 2014년 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| | 6월말 | 12월말 | 10월 30일 | 11월 6일 | 전주비 | |
| 해외 |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(%) | 1.70 | 2.46 | 3.03 | 2.31 | 2.39 | 0.08%p |
| | 엔/달러 | 85.86 | 98.51 | 105.04 | 109.21 | 115.21 | 6.00¥ |
| | 달러/유로 | 1.3222 | 1.3031 | 1.3799 | 1.2613 | 1.2375 | -0.0238\$ |
| | 다우존스지수(p) | 12,938 | 14,910 | 16,577 | 17,195 | 17,555 | 360p |
| | 닛케이지수(p) | 10,395 | 13,677 | 16,291 | 15,658 | 16,793 | 1135p |
| 국내 | 국고채 3년물 금리(%) | 2.82 | 2.88 | 2.86 | 2.20 | 2.08 | -0.12%p |
| | 원/달러(원) | 1,070.6 | 1,142.0 | 1,055.4 | 1,055.5 | 1,083.8 | 28.3원 |
| | 코스피지수(p) | 1,997.1 | 1,863.3 | 2,011.3 | 1,958.9 | 1,936.5 | -22.4p |

□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

| 구분 | 2012년말 | 2013년 | | 2014년 | | |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| 6월말 | 12월말 | 10월 30일 | 11월 6일 | 전주비 | |
| 국제 유가 | WTI | 90.89 | 96.52 | 98.55 | 81.09 | 78.04 | -3.05\$ |
| | Dubai | 107.99 | 100.38 | 107.88 | 84.82 | 79.80 | -5.02\$ |
| CRB선물지수 | 294.78 | 275.62 | 280.17 | 273.37 | 269.79 | -3.58p | |

1) CRB지수는 CRB(Commodity Research Bureau)사가 곡물, 원유, 산업용원자재,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.

□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

| 구 분 | 2012년 | 2013년 | 2014년 | | | 2015년(E)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상반 | 하반(E) | 연간(E) | 상반 | 하반 | 연간 | |
| 국민계정 | 경제성장률 (%) | 2.3 | 3.0 | 3.7 | 3.6 | 3.6 | 3.5 | 3.6 | 3.6 |
| | 민간소비 (%) | 1.9 | 2.0 | 2.0 | 2.6 | 2.3 | 3.0 | 2.6 | 2.8 |
| | 건설투자 (%) | -3.9 | 6.7 | 1.9 | 1.8 | 1.9 | 1.6 | 4.3 | 3.0 |
| | 설비투자 (%) | 0.1 | -1.5 | 7.5 | 3.9 | 5.7 | 4.2 | 6.0 | 5.1 |
| | 지재투자 (%) | 8.6 | 7.3 | 6.5 | 5.9 | 6.2 | 7.3 | 7.0 | 7.1 |
| 대외거래 | 경상수지 (억 달러) | 508 | 799 | 392 | 408 | 800 | 320 | 360 | 680 |
| | 무역수지 (억 달러) | 283 | 440 | 202 | 231 | 433 | 192 | 234 | 426 |
| | 수 출 (억 달러) | 5,479 | 5,596 | 2,833 | 2,936 | 5,770 | 2,949 | 3,074 | 6,023 |
| | (증가율, %) | (-1.3) | (2.1) | (2.5) | (3.7) | (3.1) | (4.1) | (4.7) | (4.4) |
| | 수 입 (억 달러) | 5,196 | 5,156 | 2,631 | 2,705 | 5,336 | 2,757 | 2,840 | 5,597 |
| | (증가율, %) | (-0.9) | (-0.8) | (2.6) | (4.4) | (3.5) | (4.8) | (5.0) | (4.9) |
| 소비자물가 (평균, %) | 2.2 | 1.3 | 1.4 | 1.9 | 1.7 | 2.0 | 1.9 | 1.9 | |
| 15~64세 고용률 (%) | 64.2 | 64.4 | 65.0 | 65.6 | 65.3 | 66.0 | 66.5 | 66.2 | |

주 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